

(2) 만화

2013년 베트남의 만화시장 규모는 300만 달러 수준으로 2011년 이후로 동일한 수준의 만화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만화책의 붐이 일었고 일본 만화책이 베트남 만화시장의 최강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안 잠시 일본만화 ‘백수왕 고라이온(百獸王ゴライオン, 한국명: 미래용사 볼트론)’을 모티브로 제작한 베트남 만화 용사 헤스맨(Dũng sĩ Hesman)이 96년까지 159권을 출시되기도 하였으나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다. 일본만화의 인기가 대단히 높은 베트남의 만화 시장은 2018년까지 6.4%의 성장률을 보이며 400만 달러 시장으로 소폭 성장할 전망이다.

[표 8-4] 베트남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09-2018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3-18 CAGR
인쇄 만화	2	2	3	3	3	3	3	4	4	4	5.2
디지털	0	0	0	0	0	0	0	0	0	0	48.9
합계	2	2	3	3	3	3	3	4	4	4	6.4

출처 : ICv2(2014), Barnes(2014), PwC(2014)

2. 중국

3. 인도

4. 호주

5. 대만

6. 태국

7. 베트남

8. 인도네시아

[그림 8-9] 베트남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09-2018



출처 : ICv2(2014), Barnes(2014), PwC(2014)

제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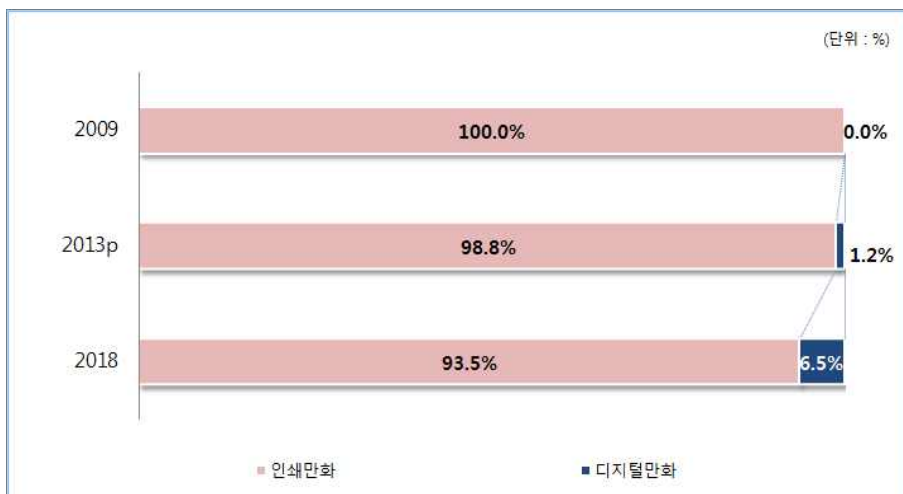
1. 일본

2009년까지 일본 인쇄 만화의 인기가 대단히 높아 100.0%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는데 2013년 98.8%로 소폭 하락하였다. 디지털 만화는 2013년 1.2%의 비중을 보였는데 인터넷망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2018년까지 6.5%의 시장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중국

3. 인도

[그림 8-10] 베트남 만화시장별 비중 비교, 2009 vs. 2013 vs. 2018



출처 : ICv2(2014), Barnes(2014), PwC(2014)

4. 호주

5. 대만

6. 태국

7. 베트남

8. 인도네시아

제1절

1.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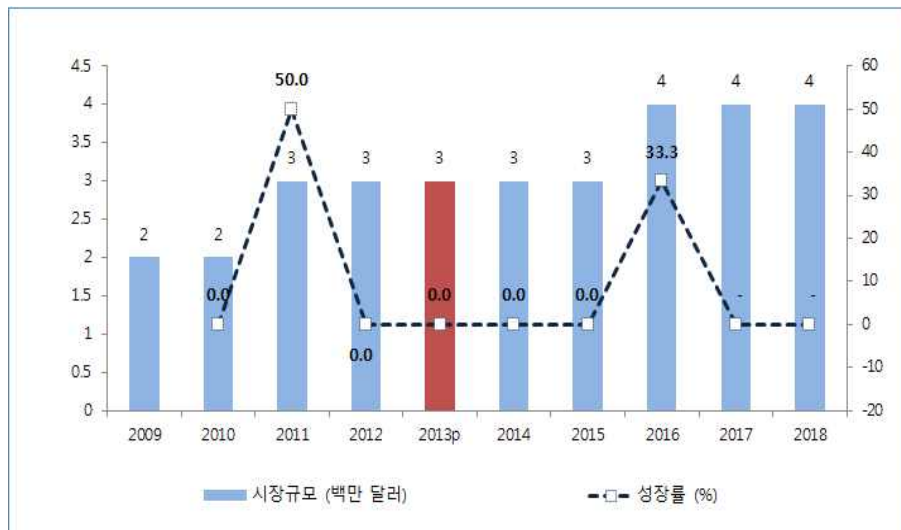
2. 중국

3. 인도

4. 호주

2013년 베트남 인쇄 만화시장은 일본만화의 인기가 많아 대부분 단행본 형태로 수입되거나 원판을 번역하여 재출간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장 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달러 미만으로 집계되었다. 90년도 중반부터 일본만화의 붐이 일기 시작하여 일본에서 출시되는 대부분의 만화들이 베트남에도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만화책들이 저작권 없이 유통되다보니 복사판이 정품과 동일한 서점에서 버젓이 판매되는 실정이다. 베트남의 인쇄 만화시장은 2018년까지 6%의 성장률을 보이며 4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림 8-11] 베트남 인쇄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09-2018



출처 : ICv2(2014), Barnes(2014), PwC(2014)